

말이 부른 복, 말로 쌓은 악업

사납게 말하지 말라.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.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면,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보복을 당할 수 있다.

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.

“남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다음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.

첫째, 들추려는 문제가 사실인지, 혹 거짓 소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둘째, 그 문제를 지적할 때는 시기가 적절한 지를 살펴야 한다.

셋째,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상대방과 제삼자에게 모두 이익이 있어야 한다.

넷째, 부드럽고 조용하며, 번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.

다섯째, 그 상대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유지하며 절대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.”